

## '미디어의 헛소문 보도'에 관한 연구

小池正春, 伴田薫

이 글은 일본방송출판협회가 발행하는 "방송문화" 1997년 4월호에 게재된 小池正春, 伴田薫(방송문화 기자)의 '미디어데마의 연구-宍崎録 (캐스터)는 모피를 입고 있었는가'를 한동원 중재위원(전 한국언론연구원장)이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 宍崎録 캐스터는 모피코트를 입고 있었는가

신문, TV, 주간지 등이 가벼운 기분으로 흘리는 헛소문도 되풀이되는 가운데 진실성을 띠게된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매체 관계자들이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고 써 오던 보도형식 중 하나가 부정되었다. 이것의 계기는 1996년 5월 20일 '로스의혹'에 관한 기사를 둘러싸고 三浦和義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루어졌다.

교도통신사가 제공한 정보를 '사실'로 해서 보도하는 일은 지방지 등에서는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보도의 형식이다. 그러나 통신사가 공급한 정보에 잘못이 있거나 기사로 인해 당사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정보를 보도한 쪽에도 책임이 있다는 요지의 판결이 내렸다.

미디어의 책임을 묻는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 1996년 12월 9일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우정성의 '다채널시대의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에서는 위성방송 등의 '새로운 방송'에 대한 대응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방송'을 규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최대의 쟁점이 된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제 3자 기관의 설치문제. 그 시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양론병기'라는 형태로 낙착되기는 했으나 '방송의 책임은 이 이상 더 방송국의 자율적 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우정성의 강력한 주장이 표면화 되었다.

이는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미디어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에 사법이 속박을 과하고 행정의 개입하려고 하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단정하는 일은 경솔할런지는 모르나 미디어가 공권력의 간섭을 받게 되는 배경의 하나에는 미디어가 '사실'을 전달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실과는 다른 정보'가 횡행한다는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닐까.

### ◇ 우스갯 일로 끝낼 수 없는 헛소문 정보

<키무타쿠 독립결정!>-1997년 1월 16일 이러한 호외가 도쿄의 변화가에 배포되었다. 스포츠지 케타이스포츠가 발행한 것이었다. 인기그룹 SMAP의 해산이나 木村拓哉의 독립은 지금까지 예능 관계 매체 사이에서는 몇 번이나 화제에 올랐다. '몇 번'이나 화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 때마다 정보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志村けん이 죽었다>-이러한 소문도 지난해 향간에 유포되었다. 이들 어느 정보도 지금에 와서는 단순한 '헛소문'에 지나지 않았다고 일소에 불여지고 있으나 이러한 '괴정보'나 '허보' 중에는 우스갯 일로 끝낼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1995 년 이후 여성지를 중심으로 일종의 붐까지 일으켰던 배싱(Bashing)보도. 그 와중에서 '혐오스러운 여자'로 이미지가 박힌 여성유명인이 적지 않았다. 일련의 붐은 『여성자신』지가 1995 년 9 월 19 일호에 특집으로 게재한 "이 10 인 왜 동성들이 싫어할까!?"라는 기사가 발단이 되었다고도 한다. 이 잡지의 高橋正 편집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기획은 독자의 소리를 솔직하게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일종의 '예능세론'이다. 배싱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나 우리들에게는 탤런트들을 때려서 이러쿵 저러쿵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편집부는 심판역에 철저했으며 '좋아한다'는 펜들의 소리도 가능한 한 채택해서 취급하도록 했지만..." 배싱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지 손상에 연결될 만한 정보가 표면에 나오면 예능인에게는 치명상이 되지않을 수 없다.

모 주간지의 예능데스크 N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배싱보도가 그들의 일에 영향을 준 탤런트는 제법 있습니다. 裕木 奈江 등은 실력부족이라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혐오스러운 여자'라는 이미지가 정착되어 CM 도 적어졌고 지금은 예능계로부터 사라져 가고 있지요."

'혐오스러운 여자'로 언론에 몇 번이고 등장하게 되면 그러한 이미지는 더욱 더 부풀어져 얼마 후에는 실상을 몰아내는 데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이것이 미디어의 무서운 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디어의 공포에 피해를 입는 것은 비단 인기직업의 예능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정보가 되풀이해서 유포됨으로써 사회로부터 말살 당하는 사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옴진리교에 관한 보도에서 '옴진리교를 옹호한 학자'로 낙인 찍혀 근무처인 대학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던 종교학자 島田裕巳 씨. 그리고 이 사람도.

"지진의 재난 현장에 모피옷을 입고 있었다 - 한때는 그것이 나의 이름의 형용어구처럼 되어있었으니까요" (캐스터 · 窪崎録 씨)

정보를 공급하는 쪽에 있었던 그녀 또한 미디어가 흘린 헛소문의 피해자의 한 사람이 되었다. 도대체 이러한 헛소문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헛소문의 진원지는 스포츠지나 주간지나

우선 2 개 의 증언을 들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여성자신』의 高橋 편집장."

松田聖子が 이혼회견을 하기 하루 전에 개인적으로 명치신문에 기원을 하러 갔다. 이것은 우리의 특종이었다. 그런데 잡지가 출간된 날 아침부터 방송프로그램 와이드 쇼에서 그녀에 관한 시시콜콜한 일들을 보도하고 나와 어느 쪽이 특종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다. 모처럼 특종을 보도했지만 독자들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방송사가 달려들어 방송해 버리니까 정보의 가치뿐만 아니라 신선미도 없어지고 말았다. 우리들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물고기 상태'라고 비유되기도 했다. 단독으로 입수한 기사거리도 건져올렸을 때에는 이미 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다음은 『일간스포츠』의 相原齊 문화부 차장.

"高岡早紀의 결혼은 우리들의 특종이었는데 혼인신고만은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싶으니 혼인신고하는 날까지 기사화하는 것을 보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다. 그래서 혼인신고 당일 기사화하기로 본인들과 약속이 되어있었는데 당일 신문의 1 판을 본 방송국에서 새벽부터

世田谷구청에 잠복하고 있었다. 운 좋게 두 사람이 目黒구청에 혼인계를 제출하러 갔었기 때문에 원하던대로 두 사람만이 혼인신고절차를 끝내기는 했으나 하마터면 와이드 쇼의 직격을 받을 뻔했다"

와이드 쇼가 얼마만큼 1 차정보를 활자매체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징하는 사례로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이들의 코멘트를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라꾸라꾸 곤니치와』(일본 TV 계)의 高橋正弘 PD로부터 들어본다.

"와이드 쇼가 1 차정보를 활자매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흘리고 있지는 않다. 활자보다는 뒤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시각이나 기획성을 가미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예능인의 이혼문제 같은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문제로까지 발전시키는 등 가급적 활자매체보다 더 이상의 것을 시청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있다. 그리고 TV 를 통해 내보내는 정보는 활자이상으로 강한 효과를 시청자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정보 그 자체도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다" 활자매체가 전달하는 1 차 정보를 채택할 경우 반드시 현장취재를 한 다음 '취급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취급한다면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다시 '표현방법'까지를 생각해가면서 방송하고 있다는 점을 高橋 PD 는 강조하고 있다.

또 후지 TV 의 太田英昭 사회정보부장의 견해를 들어본다.

"활자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 흘리고 있다고 보는 것은 와이드 쇼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에서 비롯된 편견이다. 대형사건의 한편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지메(학생들간에 학대하거나 못살게 구는 일)'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제로 취재를 해 보면 활자의 정보와는 많은 부분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발표나 전화취재만으로 쓰여진 기사도 활자매체에는 많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활자매체의 정보가 계기가 되는 사례는 확실히 있기는 하지만 입증취재를 위해 가장 먼저 현장에 가고 있는 것은 활자매체 쪽보다는 오히려 와이드 쇼 쪽이라고 생각한다".

활자매체는 와이드 쇼 쪽에서 보면 커다란 정보원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 정보원의 신뢰도에 대해서 TV 측은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활자매체의 정보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것일까.

#### ◇ 진위의 판단을 독자에게 맡기는 정보

앞서의 『일간스포츠』 相原 씨는 말한다. "이전에 가수 岩崎宏美 씨로부터 '益田宏美로 개명한다'는 내용의 팩스가 본인의 사인까지 곁들여 편집부에 보내진 일이 있었다. 밤 10 경이었으므로 최종판에 빠듯하게 겨우 끼워넣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예능면 속에 끼워넣어 보았다. 그러나 팩스에는 발신자측의 전화번호가 없었으며 뭔가 부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게재를 하지 않았지만 다음날 2 개의 스포츠신문이 이 기사거리를 취급했었다"

기사로 나간 다음 이 개명에 관한 팩스는 악질적인 장난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큰 소란없이 끝나기는 했으나 이러한 장난이나 밀고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相原 씨는 말한다. 또한 활자매체 측의 다음과 같은 '정직한' 소리도 있다.

"阪神 대지진이 있는 후 잘 팔리지 않는 탤런트들이 정보를 누설해 오는 경우가 많았다. 자선음악회를 한다든가, 재해지에 의연금을 보냈다든가. 그러나 의연금이 정말 재해자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전달되었다면 어느 정도 보람있게 쓰여졌는지,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있지않는가? 그 가운데는 명백히 매명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때가 때인 만큼 '미담'으로 기사화한 것도 있었다. 정보누설은 방송국에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잡지의 경우 독자에게 화제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미확인정보를 흘리는 일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앞서의 예능데스크 N 씨).

독자에게 '허용되는 범위'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 회답의 일단은 주간지『SPA!』의 衫田淳 편집장의 코멘트가 맞춰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활자와 TV와는 그 고객층이 다르다. TV는 기본적으로 어린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이나 잡지는 독자층을 좁혀서 지면제작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20대 후반, 독신,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독자층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릴라식 기획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鬼畜'들의 윤리관'이라는 기획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버린 쓰레기를 뒤져 프라이버시를 파헤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사체에 관한 책이 팔리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도대체 무엇이나는 등의 기획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은 편집부와 독자가 서로 납득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며 TV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정된 독자층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 활자매체와 독자와의 사이에는 이른바 '어른의 동조·의리'가 성립되고 있다. 그래서 진위의 판단을 독자에게 맡길만한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사례가 있게 된다.

"택배하는 신문이외의 활자매체는 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된다. 신뢰성은 물론 중요하지만 화제성이 없으면 팔리지 않는다. 어려운 일은 바로 그 균형이라고 생각한다. 화제성의 비중이 신뢰성을 크게 넘어설 경우 그 기사는 헛소문이 되기 쉽다"(앞서의 예능데스크 N 씨).

무서운 것은 신뢰성이 높은 기사도, 화제성에 비중을 두고 쓴 기사도 모두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사실이다. 활자매체의 자료적 측면에 관해『SPA!』의 衫田 편집장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활자의 정보는 다이타쿠문고나 퍼스컴의 서비스 등으로 검색될 수 있다. 틀린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함께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窪崎録'로 검색하면 '모피'라는 정보도 함께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로써 남는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자료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진위확인도 쉽게 할 수가 있다. 그 자료가 미디어를 통해 전언(말 전하기)게임처럼 퍼져나가는 사이에 헛소문의 내용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자료화된 정보에 대해서는 경계심도 얽어진다. 그 결과 화제성이 높은 소재로서 다른 매체에서도 쉽게 취급하게 된다. 여성탤런트에 대한 배싱보도 등은 그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헛소문을 키우는 전언(말 전하기)게임에 TV가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 ◇ TV가 흘리는 활자로부터의 정보

"와이드 쇼의 현장 스텝은 120명 이상 있는데 정기적으로 연찬회를 갖는다. 지금까지 '취재와 인권' '형사소송법의 기본연구' 등의 주제를 가지고 해왔는데 이는 우리들이 보도피해와 아슬아슬하게 관련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식의 표출이기도 하다. 물론 연찬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된 정보를 흘릴지도 모를 위험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배려를 할 생각이다".

후지 TV의 太田 사회정보부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TV국측의 말을 듣는 한 와이드 쇼가, 와이드 쇼의 취재에 근거하여 흘리는 정보에 관해서는 헛소문이 흘러나갈 가능성은 대단히 적은것

같이 생각된다. 만에 하나 활자매체가 헛소문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취급하는 TV 가 독자적인 취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시청자에게 사실만을 전달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싶으나 그렇게 생각될 수 없는 점도 있다. TV 를 보고 있노라면 '독자적인 취재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신문의 조간이나 석간, 잡지를 함께 나란히 소개하고 있는 코너이다.

'○○신문에 의하면……' 하면서 와이드 쇼에서 활자매체의 기사를 읽어내려 가는 코너는 지금 고정프로화 되어있다. 원래 돈을 주고 입수할 수 있는 신문이나 잡지의 정보를 공짜로 입수할 수 있으니 진실로 고마운 코너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상을 좁혀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은 스포츠지나 잡지의 정보가, 어린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TV 에서 그대로 취급되고 있는 데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정보는 소개하지 않는다는 책임회피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활자매체의 정보가 표지나 제목만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는데 '격중중!', '아, XX 씨가!?' 따위의 선정적인 문자가 화면에 나타난다면 시청자에게 주는 충격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신문들을 나란히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떠한 정보가 나돌고 있는 지를 단시간내에 시청자에게 알리기 위한 일종의 서비스이다. 신문사의 허락하에 정보를 발신한 매체명까지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활자정보를 소개한 TV 에까지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닐까" (후지 TV · 太田 사회정보부장은).

확실히, 활자의 책임을 TV 가 진다는 것은 잘못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는 것도 적어 두고자 한다.

"스포츠지의 매상은 TV 에서 소개되면서부터 확실히 신장했다. 이전에는 역전의 매점 등에서 독자의 눈에 띄이기 쉬운 1 면 오른쪽 상단의 큰 제목으로 승부했으나 지금은 TV 화면에 지면전체가 방영되는 것을 의식한 편집을 하게끔 되었다" (일간스포츠 · 相原 문화부차장).

"지진재난 현장에 宍崎録가 모피를 입고 있었다?"-이러한 큰 활자가 TV 화면에 클로즈업되어 방영되면 어떻게 될까. 宍崎録씨에게 '모피를 입힌' 책임이 TV 쪽에 없었을까?

## 자식을 지키기 위해 항의의 결단을 했다

### <캐스터 宍崎録>

#### ◇ 모피사건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阪神 지진 재난의 취재때 입지도 않았는데 「모피코트를 입고 가다니 과심하군」이라는 전혀 거짓의 개인공격을 보도를 통해 받았다. 지진 재난 후 3 개월이 지난 4 월께부터 맹렬하게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 알게 된 것은 한 여성주간지의 기사였다. 과거에도 사실무근의 충상을 받은 일이 여러 번 있었으나 이 때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취재도 확인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로서는 신문광고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 헛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이 때를 전후해서 내가 캐스터를 맡았던 '프론티어'라는 뉴스프로에, 여기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모피코트를 입고 나간 데 대한 반향은?"하고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은 이 프로의 프로듀서가 '애초부터 모피코트를 입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반향도 있을

수 없다. 아무쪼록 사실오인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를 이야기 해주었으나 무시된 채 그대로 제멋대로의 기사가 나돌았다. 한 잡지가 쓰면 차례로 인용하고 인용된 기사를 또 인용하기도 했다. 매주 매주 나오는 주간지 또 이어 나오는 주간지에 이래도냐 이래도냐는 식으로 보도되었다. 물론 나에 대한 취재는 거의 없었다.

더욱이 후발의 잡지들은 과격하게 과장하여 예를 들면 '지진취재에 모피코트를 입고 가는 바보니까 프랑스의 핵실험에 온 세계가 반대하고 있는 때에도 고급 프랑스와인을 마시고 브랜드상품을 몸에 걸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식의 중상적인 보도도 많았다.

이러한 집단적인 린치상태가 6 개월 이상 계속되어 '모피'라는 용어는 거의 나의 형용사화 할 추세였다. 날조된 헛소문이 회를 거듭해 가면서기정사실화 되어가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바탕위에 인물상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나는 '모피의 窟崎'라는 터무니 없는 괴물만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 ◇ 최초에는 어떠한 항의였습니까

이것은 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나 팀의 문제이다. 역으로 말하면 그러한 헛소문이 만들어 낸 이미지 때문에 뉴스의 신빙성과도 관련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대응, 홍보대응이 되면서 '프런티어'의 이름으로, 또는 방송국의 홍보차원으로 접근했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편집부는 '예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정도로 끝내고 만다. 그 가운데에는 새로 정정 기사를 게재해 준 곳도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면 『월간문춘』의 경우 인터뷰를 갖고 싶다는 연락이 왔었다. 확인도 하지않고 기사화되는 고통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여성지를 비롯한 각종 잡지들이 마구 기사화한 직후였다.

이쪽은 프로그램대응과 방송국차원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프로듀서가 직접 그쪽 사람과 만나 2 시간 정도 정성껏 이야기를 해 주었다.

원래의 사실 그 자체가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텐데도 그 후 나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는가 하면 자택 주위에 잠복하기도 했다. 1995 년 4 월말 마침 내가 베트남전쟁 종결 20 주년의 취재를 위해 베트남으로 가 약 1 주일 집을 비웠을 때 있었던 일이다.

집을 비운 사이에 방문한 잡지사의 마감시간에 맞추어 해외취재를 중단하고 귀국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나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이다. 같은 미디어의 동업자로서 성의를 갖고 답변할 생각으로 베트남에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사정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나리타공항에 도착 즉시 공항에서 『월간문춘』의 편집부에 전화를 걸었다.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직원들이 별로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화를 받은 여직원에게 이쪽의 이름을 밝히고 "左藤 기자로 부터 여러번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 통화를 하고싶다"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그랬더니 "左藤 성을 가진 사람이 셋 있는데 어느 左藤냐"고 대꾸했다. 성밖에 모르고 있어 "窟崎를 만나려 하고 있는 左藤 씨라고 하면 모를까요"라고 부탁했더니 "그래서는 알 수 없으니 연결할 수 없다"면서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월간문춘』이란 지독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했으나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 없어 계속해서 세번이나 전화를 걸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아 대신하는 수 없이 FAX 를 넣었다.

실은 이보다 앞선 전단계가 있었다. 나에게 빈번하게 걸던 기자는 집을 보는 사람에게 '남자끼리면 술이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할 수 있을텐데 남자와 여자 사이이니 주변의 눈도 있어 식사라도 하면서'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도 있고 해서 FAX 로 '이미 프로듀서가 제의한 내용 이외의 일이라면 대응하겠습니다'라는 취지와 함께 '전화를 주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기가 냉각되면 한잔 하러 가지지요'라는 내용을 덧붙여 보냈다.

그랬더니 마지막 부분만을 집어들어 '기자에게 유혹의 FAX 를 보내오는 宍崎錄의 감성'이라는 제목이 튀어나왔다. 나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악의에 가득찬 그 기사 속에서도 모피가 형용사로 되어있었다. 프로듀서가 항의했더니 '모피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빈축을 사고 있다'고 했을 뿐이며 '입고 있었다'고는 쓰지 않았다. 소문을 소문으로 표현했으므로 기사 내용은 바르다는 것이다.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으로'라는 나의 신념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억눌리는 것 같은 기분으로 있던 참에 이번에는 어떤 사람과 재혼한다는 또 다른 사실무근의 보도가 스포츠지의 1 면에 크게 나갔다. 또다시, 나오는 주간지 마다 취재없이 쓴 기사로 가득했다. 물론 '그 모피의 환기가 이번에는 재혼'이라는 투였다.

엔터리이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논리로, 피해자측에게는 반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 모처럼 취재기자와 만난다 하더라도 이쪽의 주장은 듣지도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왜곡하는가 하면 만난 일도, 말한 일도 없는데도 거짓말 위에 인물상이 쌓여져 간다.

이러한 시도 끝에 최후의 수단으로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적어도 사실관계의 줄거리만은 밝히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법적 수단에 호소하는 결단을 내리기까지에는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 ◇ 법적 수단에는 상당히 번민한 것 같은데요

이전에 NHK 에서 '뉴스센터 9 시'를 담당하고 있었던 시기에는 풍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제일의 자세였다. 뭐라고 말이 있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머리를 숙이고 참는 것이다. 나로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만은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었으나 '반론한 것이 새로운 뉴스가 되어 다시 다음 주의 기사거리를 제공하게 되고 과장되어 부풀어 오를 우려가 있다'는 충고가 있으면 조직의 일원으로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다.

내가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가장 큰 요인은 아들의 존재였다. 아들도 점점 성장하여 당시는 유치원, 지금은 초등학교 1 년생으로 사회적인 일에 관해 이해할 만큼 되었다. 어머니의 얼굴사진과 함께 큰 제목이 나오게 되면 어머니가 아무리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해도 뭔가 이상한 사태가 일어만 것으로 눈치 채고 있다. 글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나는 자식만은 지키고 싶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제 침묵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 ◇ 항의의 전말과 TV 에 의한 피해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모두 9 개사에 내용증명을 송달한 결과 회사마다 정정이나 사죄를 하기에 이르렀다. 지면에 내지 않는 경우에도 사죄문을 서신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정정해주겠다고 하는 단계에서 나로서는 대단히 복잡한 심경에 빠져들었다.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보도에 대한 책임이란 무엇인가. 법적 수단을 들고 나온 데 대한 부끄러운 생각도 있다.

나도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과연 괜찮은 것인지, 자신이 자신의 목을 졸라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했다.

모피문제 이후 재혼보도라는 것이 스포츠지 1 면 톱에 나왔을 때 때마침 일간지는 휴간일이었다. 그래서 아침의 신문 기사를 소개하는 프로에서는 보통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스포츠지를 취급했다. '오늘의 톱뉴스'라고 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스포츠지를 보았다는 사람보다는 TV 를 보았다는 사람들로 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그러니까 TV 와 활자는 연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미지 형성이라는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멘트에서 '저 사람은 취재지에 모피코트를 입고 가는 그런 사람이니까'라는 따위의 표현을 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시청자, 독자들의 눈이 날카로워졌다고 생각한다. 도쿄에서 택시를 타기라도 하면 택시기사가 "아, 窪崎 씨. 몹시 가혹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 믿지않아요"라고 말해주기도 한다.

나로서는 아주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미디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미디어의 신뢰성이 자꾸만 떨어져가고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느낀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자를 침해하기 시작하면 대담한 날조가 행하여지기 마련이다. 나 같은 경우, 의지할 힘있는 조직에 속해 있지도 않고 권력도 갖고 있지 않아 알맞은 약자라고 하겠다.

#### 窪崎録 캐스터 -모피문제를 검증

窪崎録 씨에 의하면 '모피 코트를 입고 고베의 지진 피해를 취재했다'는 헛소문이 등장한 것은 1995 년 3 월경이라고 한다. 여성주간지가 '누구 누구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누구 누구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었다'는 등의 기사 가운데 하나로 '窪崎録는 모피를 입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窪崎録 씨의 부분만 크로즈업되어 여러번에 걸쳐 보도되었다. ('모피'의 발신원은 여전히 불명이나 '관서방면의 만담에서 나온 것이다', '독설탤런트가 버라이어티프로에서 입에 올렸다'고 한다).

일련의 窪崎録 배성의 발단이 된 것은 『여성세븐』의 "窪崎録 '모피', '간살'로 캐스터-생명의 위기!" (95 년 4 월 25 일호)라는 기사이다. TV 아사히 관계자의 말로 실린 코멘트의 일부는 이렇다.

"窪崎録 씨, 상식을 벗어났다고 할까요. 阪神 대지진 때에도 신속하게 현지에 달려간 것은 좋았으나 그 특별보도프로에서 보도할 때의 모습을 보고 놀래 자빠졌어요.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모피 코트까지 걸쳐입고 중계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러한 사실은 없다. 이 잡지는 95 년 4 월 1 일의 TV 아사히 '프런티어'에서의 옴진리교 · 青山元 변호사 인터뷰에 대해서도 "도대체 그녀의 지겨운 프로의 품위는 어디에 있는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나미 떨어지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요"라는 시청자의 말을 게재하고 '프로그램측에 대해서도 항의의 전화가 쇄도했었다'고 덧붙였으나, 그러한 사실도 없었다. (『주간문춘』, 『주간여성』, 『여성자신』 등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 년 7 월 12 일자 『일간스포츠』에서는 "일본 TV 에로의 이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허보(『주간신조』, 『주간보석』, 『주간아사히』 등이 뒤따라 보도)를 했으며 10 월 11 일자 『산케이스포츠』에는 '堀紘一 씨와의 재혼이야기'라는 허보(『주간문춘』, 『주간현대』, 『주간대중』, 『동경스포츠』 등이 뒤따라 보도)가 게재되었다. 속사정을 소상하게 잘 알고 있는 여성지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배싱기획이라는 것은 특별히 편집부가 대상자를 증오해서가 아니다. 독자로부터 전화나 엽서가 들어와 예를 들어 어떤 탤런트에 대해 '성장배경이 좋지 않고 양친이 이혼했다'는 등의 욕설내용이 여러 통 쌓여 사실성이 있어보이면 상황을 검토하게 된다. 이때 대상이 되는 것은 '벼락출세', '사무소의 약세', '취재거부' 등이다. 실제로 힘이 강한 연음의 간판 탤런트 山口智子の 어머니에 관한 기사를 무심코 써버린 모여성지가 있었는데 그 출판사의 몇 개의 잡지가 취재를 거부당해 방송국의 프로그램사진 조차 입수하지 못했다. 요컨대 그 잡지가 팔릴 수 있는지의 여부를 생각하면서 배싱기사가 기획된다".

#### ◇ 갈라진 항의에 대한 반응

그런데 宥崎 씨에 대한 배싱을 95년 4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이에 대해 고민을 거듭하던 끝에 宥崎 씨가 항의를 결단하게 된 것은 10월부터 11월에 걸쳐서의 일이었다. 변호사와 상의해 가면서 주간지나 신문기사의 일람표를 작성, 법적으로 보아 사실오인인지, 명예훼손인지를 검토하여 16 개 정도의 매체 가운데서 항의할 매체를 9 개로 압축했다고 한다. 준비하는데 약 1 개월. 연말의 최고기사거리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빠 서둘렀다. 최초로 11월 23일 『소문의 진상』에 항의한데 이어 『여성세븐』(12월 6일), 『주간문춘』, 『주간아사히』, 『주간여성』, 『여성자신』, 『주간현대』, 『주간대중』(1월 6일), 『동경스포츠』(1월 24일) 순으로 항의 했다.

대응은 ① 사죄문 게재나 이에 대신하는 원고게재를 수용한 매체(『여성자신』, 『주간대중』 등), ② 편집장명의로 문서를 보내오거나 이해를 구한매체, ③ 최후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매체(『주간문춘』 등) 등으로 나누어지기는 했으나 예상 이상의 내용이었다. 대체적으로 여성지는 과격한 내용에 비해 성의있는 대응이었으나 남성지는 역시 완고했다. 여성지의 경우 내용이 사실무근이었든가 취재에 문제가 있었던 데 비해 남성지의 경우 인용을 할 때도 '소문인 것은 사실'이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길을 미리 준비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는 차이점을 보였다.

宥崎 씨와의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보였던 월간지 『창』의 篠田博之 편집장의 의견을 들어본다.

" 宥崎 씨가 주간지의 보도에 이의를 들고 나온 것은 그녀의 발언을 읽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쪽에서 인터뷰를 신청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재판을 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잡지에서 10년이상 갖가지 보도피해사례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이 사례의 경우 할만 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항의한 결과 사죄문과 명예회복기사의 게재 등으로 많은 주간지가 그녀의 요구에 응해주었다. 위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일부의 남성지는 강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의를 들은 체도 하지않고 문전에서 내쫓던 평소의 방식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최근 10년 동안 '보도와 인권' 문제에서 미디어의 자세가 변해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항의가 있는 후 宥崎 씨에 대한 배싱 보도는 없었다고 한다.

#### 헛소문이 가져다 주는 미디어에의 불신감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미디어에 있어서의 헛소문의 구조란 바꾸어 말하면 미디어링키지(Media Linkage)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와이드 쇼의 제작진은

동경측매국정 영업소에 가면 발매 하루전에 주간지를 입수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예능인에 얽힌 특종기사거리가 게재되어 있으면 일제히 취재에 들어간다. 취재진들은 당사자를 직접 공격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수십만부의 주간지 정보는 단숨에 몇천만 세대의 안방으로 들어간다. 방송사측에서 신중하게 한다고는 하나 지금도 소문이나 헛소문 같은 위험한 정보가 가끔 방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의 발신원인 활자매체는 미디어링키지(Media Linkage)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성자신』의 高橋 편집장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1980년대에는 TV에서 취급함으로써 부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역현상이다. 1996년부터는 지면복사규제를 방송국에 제의하고 있다. 표지는 어쨌든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안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간스포츠』에서는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부수증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TV를 의식한 지면편집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간문춘』은 어떤가.

"TV에서 취급함으로써 어느 정도 부수가 신장했는지는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선도가 떨어지고 판매가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TV에서 취급한다는 것은 독자를 끌어들이는 정도가 큰 기획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청자나 독자는 민감하기 때문에 와이드 쇼나 주간지의 내용을 그대로 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디어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드 쇼의 방식을 굳이 흡입을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平尾隆弘 편집장).

요컨대 활자매체 간에도 평가가 갈려 활자매체와 TV와의 줄다리기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방송계에서 안이한 타 매체의존에 대해 반성의 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TBS『조사정보』 3호에 『안녕 타도라』의 衫崎一雄 제작프로듀서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신문기사만 두드러지게 눈에 띄이는 아침의 정보프로그램이 되가지고는 안된다. 방송국이 스스로 독창적인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간인쇄를 끝낸 신문인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 ◇ 헛소문 보도의 참뚝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미디어링키지 속에서 확대되는 헛소문이며 그것이 가져올 미디어에 대한 불신감이다. 법정대학 사회학부 湊増龍夫 조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근원은 三浦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미담이 배신당했으니 어떤 것을 쓰더라도 괜찮다는 것으로 되어버렸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 제법 있어 삼포 피고의 역습을 받아 사실관계로 다툼을 벌인 결과 명예훼손으로 모두 패하고 말았다. 옴진리교사건도 이와 비슷했다. 이러한 계보에 여성지의 배심도 함께 자리가 매겨지리라고 생각한다. 명예훼손 이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역겨운 여자'라는 기획을 통해 주관적인 판단을 잇달아 기사화한다는 것은 의문이다. 웃음거리가 '이지메' (학생들간에 몰매를 주거나 못살게구는 폭행행위)를 조장한다고 말하나 그 이상이다. 독자라는 일반대중을 방패막이로 삼고 한번도 만난 일이 없는 사람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쓰기도 한다. 하기가야 20 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는 미워죽겠다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이다. 특히 TV의 저쪽에는 인격은 없고 좋을대로 논평할 수 있다. 최근 수년 동안 독자는 이런 즐거움을 알고 있어 상대방은 욕구불만의 희생물이 되고 만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다시 『주간문춘』平尾隆弘 편집장의 말을 들어본다.

"窪崎 씨의 사건에서는 괴로움을 주었을런지도 모른다. 사원이 50 여명 있는 데다가 아르바이트가 전화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을 수도 있다. 나는 전화를 받는 경우 가급적 만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사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주간문춘』의 경우 '진실로 문제가 있으니깐 이것은 한다'고 결정했을 때에는 소신껏 한다. 광고나 영업쪽은 관계가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사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쉽지 않다. 高橋 씨를 담당했던 山下幸夫 변호사로부터 감상을 들어보았다.

"보도된 직후였다면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최초의 보도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하여 어디서든지 사과를 하고 나선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만으로 할 경우 아무래도 오가는 말이 딱딱해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만나서 어떻게 해달라는 이쪽의 진의를 전달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곧바로 항의를 해두는 일이다. '항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변명할 수도 있다. 항의를 함에 있어 어려운 것은 역시 인물을 평가한 부분이다. 험담을 두루뭉실하게 쓰면 대응하기가 간단하지 않다. 또 인용도 책임회피의 길이 있다. 대체로 군소 매체들이 성실한 편이었다". 어찌되었든 미디어에 있어서의 헛소문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동향이 마음에 걸리는 문제이다.